

10. 침샘 악성 혼합종의 세침흡인 세포학적 소견
- 1례 보고 -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Malignant Mixed
Tumor of the Salivary Gland
- Report of a case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박인애, 송상용, 함의근, 이상국

침샘의 악성 혼합종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조직학적으로는 양성이나 전이하는 부류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학적으로도 암육종인 부류이다. 악성 혼합종은 드문 종양으로 그 세침 흡인 세포학적 소견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저자들은 세침흡인 세포검사로 악성 혼합종으로 진단된 후 절제되어 이하선의 악성 혼합종으로 확진된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환자는 60세의 남자로 9개월 전 1.5cm 직경의 종괴를 좌측 이하선 부위에서 처음으로 촉진하였으나 그대로 지내던 중 5개월 전에는 2.5cm 크기로 커졌고 후에는 점점 빨리 커져 8×7×7cm 정도로 커졌다.

세침 흡인 세포검사상 많은 수의 세포가 관찰되었는데, 양성 혼합종에서와 유사하게 두 종류의 세포집단으로 관찰되었다. 이들은 커다란 다양한 크기의 상피세포 집단들과 좀 더 소성의 보라빛으로 염색되는 방추형이거나 둥근 기질세포들의 집단이었으며 이 두 집단의 세포들 외에, 도말 배경에서도 크고 둥근 과염색성의 세포들이 다핵으로 혹은 세포질을 가지고 관찰되었다. 집단으로 관찰되는 세포들은 각각 양성 혼합종에서 관찰되는 세포들에 비해서 크고 다형성이었고 과염색성이었으며 핵소체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간혹 화생성 편평 상피세포도 관찰되었다.

절제된 종양은 절단면상 주위와 경계는 지어졌으나 피막은 없었고 회갈색이었으며 종양의 넓은 부위에 괴사와 출혈을 동반하고 있었다.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던 중 2개월후 두피에서 여러개의 콩알 크기 결절들이 촉진되었다.

11. 전이성 신세포암종의 세침 천자 세포학적 소견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박찬필, 홍은경, 이종달

신세포암종은 약 30%에서 전이소의 증상으로 발현하며, 광범위한 전이가 특히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발현하거나, 원발종양의 제거후 매우 오랜 기간후 전이소의 증상을 나타내는 등 매우 독특한 생물학적 습성을 지닌 종양이다. 신세포암종의 세포학적 소견은 타장기의 선암종과는 약간 다른 형태학적 소견을 보여 신세포암종의 진단이 가능할 수 있고, 원발소가 불명인 경우 임상적 검사의 지침을 세

울수 있다.

저자들은 3례의 전이성 신세포암종의 세침천자 도말 소견을 재검토하였다. 골격으로 전이한 2례는 투명세포형의 신세포암종의 소견을 보였고, 폐로 전이한 한 예는 과립세포형의 소견을 보였다.

세포학적 소견 : 매우 풍부한 세포질을 지닌 세포들이 주로 판상으로 배열되었고, 간혹 큰 세포의 집단을 형성하며 도말되었다. 큰 세포집단에는 중앙에 가지를 치는 혈관이 존재하고, 그 주위로 종양세포의 배열을 볼 수 있었다. 투명 세포형에서는 세포질이 매우 얇은 막성(filmy)으로 희미하게 염색되었고, 간혹 미세 공포를 가졌고, 나핵의 형태로도 자주 도말되었다. 과립 세포형에서는 호산성의 과립상 세포질을 볼 수 있었고 세포의 다형성이 매우 심했고, 거대세포가 자주 관찰되었다. 핵의 다형성이 관찰되었고, 뚜렷한 핵소체를 보였으며, 핵은 비교적 둥글거나 난원형이었고 간혹 핵막의 불규칙성을 보였다. 세포 및 핵의 대소 부동증 또한 뚜렷하였다.

12. 세침흡인생검을 통해 진단된 췌장에 발생한 유두상 고형상피종

- 1례 보고 -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Papillary and Solid Epithelial Neoplasm of the Pancreas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해부병리과

김유훈, 김애리, 김한겸, 김인선

췌장에 발생하는 유두상 고형상피종은 젊은 여성에서 호발하며, 악성도가 경한 암종으로서, 충실성 혹은 부분적인 낭성 병변으로 나타나며, 절제후 예후는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 최근 세침흡인생검의 발달로 인하여 췌장 등 후복강내 장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양들에 대한 세포학적 검사가 초기진단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저자들은 복통과 복부 종괴를 주소로 내원한 10세 여아에서 세침흡인생검을 통하여 진단된 췌장의 유두상 고형상피종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방사선학적 검사상 췌장 기원으로 생각되는 후복막강 종괴이었으며, 크기는 $9 \times 9.5 \times 8$ cm 이었고, 충실성 병변으로 생각되었다. 세침흡인생검을 실시한 결과 유두상 종양 조직편들이 관찰되었으며, 종양세포들은 서로 밀집되어 있었고 핵은 둥글고 비교적 균일하며 뚜렷한 핵소체는 관찰되지 않아서 유두상 고형상피종으로 진단하였다. 그 후 절제된 종괴에서 실시한 조직학적 검사상 동일한 소견이 관찰되었다.